

꿈

「학력사항」

-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 조지타운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경력사항」

- 제27회(1993년) 외무고등고시 3등 합격
- 청와대 외신대변인
-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장
- 주 제네바 대표부 1등서기관
- 세계무역기구(WTO)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
- 주 라오스대사관 참사관



이 미 연

I. 들어가는 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자신의 목표와 꿈을 갖고 있다. 모진 세풍(世風)에 쫓기다 보면 그 꿈은 바래고 꺾이는 경우도 생긴다. 청년기 때 확실한 꿈을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나는 대학시절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많은 방황과 좌절을 겪기도 하였으며, 졸업에 즈음해서까지도 나의 꿈을 갖지 못했었다. 그 때 나는 한쪽으로 밀어났던 먼지 덮인 성격책을 다시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였다. 그 때 내 눈에 뭉개진 요셉의 꿈 이야기였다. 꿈쟁이 요셉, 그는 형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그것이 형들의 마음을 사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고, 옥살이를 하며 고난중에 청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꿈을 지키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 결국은 왕의 눈에 띄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나에게 용기를 갖게 한 것은 꿈을 잃지 않았던 요셉이었다. 우리는 꿈을 먹소 사는 동물이다.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실현시키고자 계획하고 노력하며, 결국은 그 꿈을 성취시키는 데서 비로서 인간으로 태어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나의 대학생활과 외무고시를 준비한 총 7년 동안의 청년기의 방황과 자기와의 투쟁은 외

무고등고시 합격이라는 꿈의 열매를 맺게 됨으로써 일단락지어진 듯 하다. 이번 시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나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나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고시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후배들, 특히 외교관 2세를 꿈꾸는 이들, 여성으로서 외무고시에 도전하려는 이들, 시험의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고 방황하며 자기의 꿈을 찾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비록 달필은 아니지만 이 글을 바친다. 미약하나마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II. 해외에서의 유년시절

1968년 2월 6일에 태어난 나는 4살 때 외교관이신 아버지를 따라 미국 워싱턴에서 1학기 까지 생활한 것으로 나의 첫 해외생활은 시작되었다. 어린 나이에 생소한 이국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던가보다. 밤이면 소스라치게 놀라 깨기도 하고 잠결에 일어나 집을 걸어다니기도 했다. 국민학교 2학년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2년,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Toledo)의 이모님댁에서 1년을 보내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경기여자고등학교로 편입한 뒤로 줄곧 한국에서 생활하였다.

외교관 자녀로서 나의 생활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의 연속이었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고생했던 것은 잊고 추억만 남는가보다. 아프리카에서 전기가 안들어와 흔들리는 촛불아래 공부하던 일, 매일 말라리아약을 먹으며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아이들 이야기에 무서워 하던일, 길고 긴 우기(雨季)에 햇빛이 너무나 보고 싶어 안달하던 일... 그 기억이 새롭다.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그 곳의 풍물을 배우려고 아프리카 토속춤 배우고 음식도 만들어보고 전래동화도 읽곤 했는데, 외교관이 되어 아프리카에 가기를 꺼리는 수험생들이 있는 것이 무척 섭섭하다.

외교관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자녀교육 문제인 것 같다. 3년 단위로 해외와 국내를 순환근무하다 보면 교육에 소홀해진다. 외교관 자녀들은 외국에서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귀국하여 한국의 폐쇄적 사고방식, 과중한 학업량, 억압적인 학교분위기를 견디지 못하여 해외에 남겨나 유학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역시 · 국제화 개방화에 맞춰 개혁되어야 한다고 한다.

내가 외무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학교, 중학교 때 6년간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점,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대학시험공부를 하며 한국식 교육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III. 대학생활

나는 정원의시험(특례입학)을 보고 1986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 입학하였다. 정원의 시험은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국사를 본고사처럼 주관식으로 본다. 출제위원의 재량에 따라 매년 바뀌는데 나는 국어는 본고사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였고, 고문

에서도 출제되었다. 영어는 Tottle형식으로 나오며, 수학은 정석을 3~4번 보았다. 고등학교 때에도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모의고사, 중간·기말고사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학급에서 1, 2등을 유지하긴 하였지만, 대학생활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남보다 2배로 노력해야 했고, 한국적 사고방식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 외국에서 대학을 다닐걸 하는 후회도 많이 했었다.

평소 부모님께서는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하셨는데, 이러한 가정교육이 나로 하여금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으로 남도록 한 것 같다.

그 해 5월, 아버지께서 미국 UN대표부로 부임하시어 외교관 자녀 기숙사에서 대학 4년을 보냈다. 나로 하여금 한국사회에 눈뜨게 한 것은 대학신문사에서 기자로서 활동한 것이다. 사회과학 서적도 많이 읽었고, 집회에 나가 구로동에서 여성노동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6·10시민대행진 때도 광화문에 나가 민주화를 갈구하는 서울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폭넓은 사회과학적 기초와 비판의식을 갖추게 된 것이 이후 외무고등고시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열정을 가지고 한국의 장래를 진정 걱정하고, 조국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대학생, 청년들의 특권이 아닐까?

그러나 4학년이 되고 졸업 후의 진로를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내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대학이라는 보호막속에서 기성세대에 불만이나 토로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장래를 진정 걱정하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 구로나 외치며 불만을 쏟아말고, 직접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일에 참여해라.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소시민’으로 남아 사회의 기층체계에 안주해 버리게 될 것” 이라고 하시며 외교관이 돼보라고 권하셨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4학년 2학기를 졸업논문준비에 바빠 외무고시는 뒤로 미루어졌다. 내가 과연 한국에서 줄곧 공부한 사람들도 떨어지는 고시에 합격할 수 있겠는가하는 두려움도 컸다. 관련과목을 수강한 적도 없고, 외국어도 꾸준히 준비해 두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정치외교학과생도 아니다.

그 때 다행히도 아버지께서 귀국하시어 1990년 2월 기숙사를 나와서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적극적인 권유와 격려속에서 일단 공부를 시작하였다.

IV. 고시공부의 시작

199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으나, 3년 동안의 훈련을 거쳐 외무고시에 합격한 셈이다. 사실 이것은 모험이었다.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중고등학교 때 배운 불어 대신 중국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내가 해외생활의 경험을 살려 훌륭히 외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고, 어머니도 여성으로서 자신있게 사회참여를 통해 자기 몫을 다하라고 용기를 주셨다.

1990년 상반기에는 학교에서 국제법·경제학 등을 청강하고, 압구정동에 있는 중한외국어학원에서 중국어를 배웠다. 학교도서관에서 알게 된 친구들로부터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하반기부터는 제1차시험에 집중했다.

1990년 1월 25일 외무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때 갑자기 50명을 뽑게되어 1차합격자 수도 194명으로 증가되었는데, 나는 헌법 97.5점, 영어 95점, 정치학 80점, 문화사 85점, 국사 85점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기본서를 두 번씩 읽고 문제집도 2권씩 각각 3~4번 정도 본 덕분이었다. 나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눈오는 추운 겨울, 제2차시험을 끝까지 보고 어영부영 지나다보니 벌써 5월이 되었다. 작년에 국제법·경제학 책을 두 번씩 보았지만, 막상 공부를 하려니 기억이 가물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학교청강, 학원강의, Tape 그룹스터디 등을 통해 시험에 대비하였지만, 경험과 정보부족으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1991년 상반기에는 미시·거시경제학을 태학관 학원강의를 들으며 익혔고, 국제경제학은 김인준 저 『국제경제론』과 D. Salvatore의 『국제경제학』을 읽었으나 이해수준을 넘지는 못했다. 국제법은 법대를 졸업한 이충면, 이진우, 이재민과 study를 할 수 있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이한기 저 『국제법강의』를 text로 하였고 때문에 따로 이준범 저 『국제법신강』을 보는 등 혼란을 겪었다. 여름에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외교사 국제정치학 study를 위해 학교에 갔는데, 외교사는 외기평, 김용구 교수의 『세계외교사』를 모두 보았다. 국제정치학은 범위도 방대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다양하여 공부하기가 까다로웠다. 김순규 저 『신국제정치론』을 보면서 박상식 『국제정치학』,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이호재 역 한스모겐스 『Politics Among Nations』 등을 읽어 보충했지만 썩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8월이 되어서야 겨우 전과목을 한 번씩 훑었지만, 단권화도 못하였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공부에 심한 회의를 겪었다. 나 자신이 초라해보였고, 아버지 어머니의 격려도 부담이 되었다. 어서 빨리 시간이 지나 이 지겨운 고시와 작별하고 싶을 뿐이었다. 강제성을 부과하려고 7,8월에는 토요일마다 파고다학원에서 영어작문을 수강했고, 8,9월에는 동방고시학원에서 행정학강의를 들었다. 일단 공부나 하고 고민은 뒤에 하지는 여지였다. 10월부터 학교도서관에 나갔지만 자리투쟁, 가방분실사건, 지지부진한 공부 등이 나를 짜증나게 했다.

내가 과연 여성외교관으로서 활동할 확고한 꿈과 의지를 갖고 있었던가? 타의에 의한 결정은 아니었나? 꿈이 없는 노력은 허무감만을 줄뿐, 피로만 쌓였다. 공부량도 7시간을 겨우 넘겼다.

12월 말 나는 근처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했다. 하나님께 정신적 위안을 얻고 싶었고, 정말 외교관이 나의 꿈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부흥회 마지막날 목사님은 참석한 교민들에게 한 두 가지 절실히 원하는 것을 정해 70일간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매일밤 12시 정각에 찬송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외무고시 합격을 위해 기도했다. 시편을 읽으면서 내 마음도 평안해지기 시작했다.

“시험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하루하루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1992년 1월 20일의 일기)

공부하는 틈틈이 나는 교회 목사님이 권해주신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읽다가 단거리선수와 장거리선수의 이야기를 읽고 큰 용기를 얻었다. 단거리선수는 단거리 경주에서 이겼지만, 장거리경주에서는 졌다. 왜?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경주를 마치기 전에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시작할 때 아무리 1등을 뒀다 하더라도 끝까지 시합을 마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경주를 끝낼 때까지 지속적인 보조로 뛰어야만 한다. 그리고 훌륭한 주자는 경주의 마지막 코스에 가장 빠른 속도로 끝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운동선수의 능력은 그것이 적당한 인내와 합쳐지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물론 고시공부를 하나의 장거리경주로 본다면,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러나 더 넓게 본다면 나는 고시라는 단거리경주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장거리경주를 달린다. 혹시나 조금급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속도만 내려 하는 것은 아닐까? 장거리경주를 뛰기 위해서 나는 확고한 인생의 동기를 갖고 인내로 무장하고, 그 위에 지적 성장이 조화되어야 하는데, 고시는 내 전체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며, 더 먼 미래의 지속적 발전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2월 19일,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다. 정신적 방황과 시행착오로 준비가 완전하다 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준비한 한도 내에서 최선의 답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음은 바람 없는 호수처럼, 이상하리만큼 평안했다.

시험이 끝나고 나는 잘랐다고 생각했다. 합격의 기대도 걸어봤다. 그러나 실제 내가 잘 썼다고 믿었던 자신감은 그 당시 많은 수험생들도 갖고 있었다. 국민윤리의 ‘남북한 통일정책비교’, ‘경제학의 시장실패이론’, 국제법의 ‘남극의 국제법상 지위’,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조약의 유보’, 국제정치학의 ‘르카르노조약’ 등은 누구나 다 예상하고 준비한 문제였던 것이다.

시험발표는 3월 25일, 나는 24일 내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다. 앞이 캄캄했다. 엉엉 울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음날 하루종일 금식하며 응답을 듣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평안의 의미는 무엇이었던가? 허탈하고 착잡한 기분으로 또 하루를 보냈다.

마음이 좀 평정되어지자 어머니께서 나에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외무고시 공부를 도와 주셨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만약 이대로 중단한다면 그 동안의 기도가 다 헛것이 되어버리지 않겠냐. 사실 2년안에 합격하기를 바란 것도 무모한 것이었다. 채도전 해보라며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셨다. 또 요셉의 꿈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동안 외무고시에 임하는 나의 자세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다.

결정을 미룬 쟁 기본전환 점, 시내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사무실에서 전화하셨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얼굴이 상기되어 나에게 오셨다. “다시 해야겠다. 0.19점 차이로 떨어졌다고 하신다. 중국어가 49점이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니? 하나님께서 1년간 더 완벽히 공부하라고 떨어지게 하셨나보다”. 국민윤리 70점, 국제법 59.33점, 경제학 60점, 국제정치 53.33점, 중국어 49점, 행정학 60점. 지금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너

무 아깝다. 갑자기 머리가 맑아졌다.

나는 즉시 종로서적에 가서 고시계에서 나온 외무고시 Guide를 샀다. 저녁에는 책상에 앉아 실패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첫째, 독서실 · 도서관 · 집을 오가며 공부하느라 절대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점

둘째, 행정대학원 시험준비와 낙방의 후유증

셋째, 외무고시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

넷째, 전반적으로 모든 시험에서 작은 문제를 하나씩 엉성하게, 기억을 겨우 되살려 썼던 점
시험운이 따라준다면 2년안에도 합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보다. 국제법은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예상하지 못하였고, 경제학은 'Tobin의 자산선택이론'을 시간부족으로 1장반만 쓰고 나왔다. 국제정치학은 국제체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시각이 빗나갔다. 행정학도 작은 문제인 행정위원회와 특별회계에 대해 1장반씩 밖에 쓰지 못했다. 중국어는 난이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불어 · 독어를 선택한 수험생들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아무리 다른 문제를 완벽하게 쓴다 하더라도 작은 문제 하나라도 놓치면 점수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외교관이 되겠다는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못하고 방황했었던 점에 나의 실패원인이 있었다.

“시험에 떨어진 것에 대해 그만 억울해 하고 그만 원통해 하자.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자.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인도를 못해주시니까. 지금 당장은 고달프고 속상하지만 이것이 훗날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되리라. 더 큰 뜻이 있길래 내 뜻, 내 계획대로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두시는 것이다. 불평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자.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다.”

(1992년 4월 6일의 일기)

V. 새 출발 - 동시합격전략

나는 동시합격을 목표로 4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나에게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외무고시는 제1차와 제2차시험간 간격이 좁기 때문에 동시합격이 힘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나는 스케줄노트북에 두 달분의 계획을 세워 나갔고, 매일의 공부량 공부내용을 점검했다. 제3차 합격자 발표후 제26회시험에 합격한 이충면씨의 소개로 동시합격한 김병연씨를 만났다. 제1차시험이 끝나자마자 제2차준비를 시작하여 모든 내용을 다 훑어볼 수 있도록 모든 과목에서 서브노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충고해 준 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경제학과 국제법은 특히 서브노트를 3~4번씩 새로 만들어가며 수정 · 보완했었는데, 보는 공부가 아니라 쓰는 공부가 지루함도 덜어주고 자기 것으로 지식을 소화시키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1. 상반기-제2차시험 공부에 집중

(1) 4월~6월

4월, 5월에는 외국어에 집중투자하자.

시험이 가까워지면 외국어를 공부하기 힘들어지므로 초반에 집중투자하고 후반에는 매일 2시간씩 시간배정을 했다.

행정학은 고시학원 강의교재로 썼던 김영철 『행정학특강』으로 단권화하고, 박동서 저 『한국행정론』은 작년에 3~4번 읽고 정리해둔 터라 다시 보지는 않았다. 4인 공저 『문제중심 행정학』을 1회독 했다.

경제학은 미시는 이준구 『미시경제학』에 이학용 『미시경제학』을 첨가, 단권화해 놓은 것을 계속 이용하고, 거시는 정운찬 『거시경제학』 3인 공저 『경제원론』, 권오철 『논점중심 거시경제학』으로 서브노우트를 작성했다.

국제경제학은 D. Salvatore의 『국제경제학』이 이해하기 쉬워 비전공자로서 보기 쉽다. 서브노우트 작성, 그러나 김인준 교수의 『국제경제론』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읽을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므로 꼭 참고해야 한다. 오랫동안 개정판을 내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진 점이 좀 아쉽다.

국제법은 이종범 등 『국제법신강』을 주 text로 유병화 『국제법 I·II』로 보완하여 1회독 했다.

국민윤리는 전통윤리분야는 『한국사특강』(서울대출판부)의 유학·불교부분을 발췌했고, 민주주의 분야는 이극찬 『정치학』을 우선 1회독 했다. 사상과 윤리를 기본 text로 방영준 저 『고시 국민윤리』와 강의 테입으로 국민윤리의 전반적 구조를 이해해 둔 상태였기에 따로 공부하지 않고 신문사설을 읽으면서 필요한 경우 scrap했다.

(2) 7월~9월 초

이 기간중에는 서브노우트를 완성하고 누락부분을 보완하며 늦기전에 새로 출판된 책을 점검하여 구입하고 모범답안도 복사해 놓았다.

행정학은 김영식의 『행정학강의 테입』를 들었고, 김영식 『행정학의 기본문제』는 한국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참고했으며, 김광웅 『행정과학서설』은 행정철학을 알고싶어 읽었지만 직접적 도움은 되지 못했다.

경제학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은 각각 서브노우트를 완성하고, 박성동 편저 서브노우트가 고시계에서 출판되어 서브노우트 작성에 큰 참고가 되었으나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서브노우트는 가능한 한 모든 내용을 요약·수록하면서도 예상답안요령으로 작성했다.

국제법은 서브노우트를 완성하고 『외무고시 가이드』 뒤에 수록된 기출문제를 참고하면서 앞으로도 가능성 있는 시사문제를 생각하면서 답안작성 연습을 했다.

국제정치학은 특정 교재가 없어 그 동안 무척 고심했는데, 하영선·이상우 편 『현대국제

정치학』(나남, 1992)이 새로 나와 그것을 1회독하였다. 국제정치 전 분야를 망라하여 교수들의 논문을 실었는데, 이책을 중심으로 기출문제 예상문제답안으로 보완했다.

외교사는 강정식의 『세계문화사 55장』의 앞 요약물 주 뼈대로 오기평·김용구 교수의 『세계외교사』로 보충했다.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간 사상지를 꾸준히 사서 읽고 한길사 간행 조지 세이빈 『정치사상사 1, 2』, 김하룡 저 『중국정치론』을 읽었다. 시험 그 자체를 위한 공부가 아닌 지적 성장을 위해서이다.

2. 중반기 - 1, 2차 병행

(1) 9월 중순~11월 중순

이때부터 1차 2차시험공부에 50%씩 할당하여 병행했다. 그래도 2차시험을 주로 하면서 1차시험 공부는 2차시험 과목과 연결하여 상호보완적으로 공부하였는데, 1차시험을 이미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서보다 문제집 위주로 공부했다.

정치학 : 이철형 『객관식 정치학』 증보판, 8인 공저 『정치학개론』 1회독

2차시험의 국제정치학, 외교사를 공부하니 훨씬 수월했다. 『정치사상사』도 도움이 되었다.

헌법 : 김학성 『객관식 헌법』

문화사 : 강정식 『문화사』, 『강좌 중국사』(총10권)으로 동양사 보충

국사 : 양영환 『새 한국사 강좌』, 『한국사 특강』 서울대 출판부

영어 : 『아카데미 토폴』, 『Voc 55,000』

자칫 자신이 다 준비되었다는 착각에 2차시험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단권화한 기본서적을 다시 정독하면서 기출문제·예상문제를 옆두에 두고 서브노우트를 점검·수정·보완했다.

국민윤리 : 『사상과 윤리』

영어 : 김태성 『고급영작문』, 시사영어사에서 나온 E.T. Carr 『What is History?』 등

국제법 : 서브노우트 중심

경제학 송병락 『한국경제론』 1회독, 한국경제실정을 이해하기 위해 참조. 속독가능. 서브노우트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하여 scrap 했다.

중국어 : 방송통신대 교재 『고급 중국어 I·II』와 홍콩 발행 『아주주간』

(2) 11월 중순~12월말 -1차시험 본격시작

2차공부를 완전히 중단해서는 안되고 외국어고 꾸준히 2시간씩 배정했다. 1차 2차 각각 80%, 20%(외국어 제외)로 공부량을 배정했다.

그 동안 평균 8시간 정도 공부하던 것을 10시간으로 늘렸다.

사실 나의 체력은 이 시기에 한계에 도달한 듯 했다. 소화기능도 가동이 정지되기 직전인 듯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아 변비로 고생했다. 그래서 침을 맞고 한약을 먹으면

서 4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공부는 집에서만 했는데, 어머니는 나 때문에 또 다시 '시집살이'를 하신 셈이다. 남자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여자가 고시공부를 하려면 가족 모두의 물질적 정신적 원조가 필요한 것 같다. 잠지기 전에 성경묵상을 하면서 나는 "겸손하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 는 말씀만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은 나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1년의 훈련과정을 주신 것이다.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후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20여년의 훈련을 받았다. 쫓기는 생활속에서 동굴에 숨어 배고프고 쓰라린 경험을 했다. 나에게도 이처럼 귀중한 경험을 하도록 해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3. 하반기

(1) 1월 ~1차시험 공부에 전력투구

1월 30일로 1차시험 날짜가 정해졌다. 1차시험 공부를 늦게 시작하지 않았나 불안했었는데 시험이 1월 말로 정해져서 무척 다행이었다.

세 번째의 1차과목 시험공부에 들어갔다.

그런데 시험보기 이를 전 나는 심한 감기몸살에 걸려 버렸다. 밤에 시작된 고열로 두통을 앓더니 기침이 그치지 않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한밤 중, 나는 암담한 기분이 들었다. 눈물이 났다. "하나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영영 울며 기도했다. 머리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 때 미국에 있는 사촌 Sonya가 보내 온 편지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성경구절을 나는 의과대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읽고 힘을 얻었어...'

그렇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친다해도 결국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29일, 하루종일 누워서 주사맞고 약먹고 약몽에 시달렸다. 땀을 흠뻑 흘리고 나서는 저녁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29일 아침, 주사를 맞고와서 나는 하루밤에 남지않은 이 귀중한 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고 새벽 2시까지 국사 문제집을 보고 다시 6시에 일어나서 마저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2) 2월~2차시험 준비에 총매진

2월 1일(월)부터 1차시험은 잊어버리고 남은 3주간 2차시험 공부에만 전념, 일주일에 두 과목씩, 이해위주의 과목과 늦게보는 과목부터 공부해 나갔다.

첫주, 행정학, 국민윤리

둘째주, 거시·국제경제학, 국제정치학

셋째주, 외교사, 미시경제학, 국제법

중국어, 영어도 매일 1시간반씩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11시간 이상씩 공부하였는데, 마음의 동요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덕분이었다.

2월 17일 1차시험 합격소식을 들었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여호와께서)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자기에게 응락하시리이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이다(시편 20장). 1차합격 소식을 들었다. 이 말씀 오늘 내게 외닿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1993년 2월 17일의 일기)

나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다. 3년동안, 아니 내가 25년 평생동안 구하던 꿈에 대한 응답이었다.

20일(토요일)부터 시작된 2차시험은 수요일에 끝났다. 쓰러질 것을 각오하고 온 힘을 다 쏟아부었다.

3월 26일 저녁, 2차시험 합격소식을 들었다. 드디어 해냈구나. 나중에 알아보니 1차시험 점수는 헌법 72.5점, 영어 85.0점, 국사 70.0점, 정치학 82.5점, 문화사 85.0점으로 146명 중 4등을 하였고, 2차시험은 국민윤리 65.66점, 영어 60.66점, 국제법 59.0점, 경제학 78.66점, 국제정치학 68.0점, 중국어 66.0점, 행정학 55.0점으로 평균 64.71점으로 30명 중 3등을 하였다.

Ⅵ. 맺는 말

나는 내가 합격한 것이 기적같다.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했고 부모님의 보살핌, 교회 어른들의 기도, 친구들의 끊임없는 격려덕분이었다. 작년 행정학 큰 문제로 출제된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이 국민윤리에서 출제되고, 경제학에서는 작년에 출제된 ‘시장실패론’이 ‘공해문제’로 다시 출제되는 등 시험운도 작용한 것 같다. 그러나 내 개인적 의견으로는 2차시험을 두 번 떨어지고 나서 다시 1차시험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개인에게서나 국가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생각된다. 1차시험 점수가 3~4년까지는 유효해야 할 것 같다. 2차시험에 떨어지고 군대에 가게된 친구, 후배들을 생각하면 내 합격이 너무나 미안하기만 하다.

외교관자녀이기에 넘어서야 할 많은 장애물도 있었고, 여성으로서 외교직을 선택한다는 점에서도 많은 갈등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수행해야 할 난관도 많으리라 예상한다. 그러나 외교관으로서 국가의 발전과 이익에 공헌하리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며 나의 꿈을 잃지 않은 한 하나님께서 주실 여러 훈련과정도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